



노키아, CDMA방식 휴대폰 4종 발표

노키아가 CDMA 방식 휴대폰 4개 기종을 발표했다.

노키아1255/2355는 로우엔드 시장용이고, 노키아2855/6165은 미들엔드 시장용이다. 급성장하고 있는 신형시장용 제품인 노키아1255/2355는 2006년 1분기 출시예정이다. 1255 모델은 무게 80g으로 핸드프리스피커·음성 녹음·달력·알람 시계 기능을 제공한다. 2종류의 게임이 내장돼 있고 착신음도 20종류나 삽입돼 있다. 연속 통화 시간 최장 4시간이고 연속 대기 시간 최대 10일간다. 텍스트 메시징을 지원하며, 250건의 연락처를 기록할 수 있는 전화번호부 저장 용량을 제공한다.

초소형 모델 2355는 무게 78g의 폴더형태이다. 128×128픽셀의 6만 5000색 표시가 가능한 스크린, FM라디오 기능이 탑재됐다. 텍스트와 멀티미디어 메시지 기능·스피커폰·WAP 1.2, 1 브라우저·16화음 착신음·달력·알람 시계 기능도 있다.

중가격대 모델의 2855와 6165는 블루투스에 대응했으며, 무게 113.4g이다. 자바와 브루 애플리케이션 및 스트리밍 오디오/비디오 다운로드를 지원하며, 양모델 모두 2006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2855 모델은 128×160픽셀의 26만 5000색 표시가 가능한 스크린을 탑재했다. 핸드프리스피커·음성 메모 레코더·음성 다이얼 기능을 제공하며 MP3/AAC 착신음에 대응한다.

6165 모델은 2855모델 기능에 더해 유효 화소수 1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했다.

중국산 휴대폰 내수 점유율 '회복세'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중국내 시장점유율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외신들이 신식산업부 집계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산 휴대폰 판매대수는 올해 상반기(1~6월) 중국내 전체 GSM/CDMA 판매대수 6281만 1700대중 46.1%인 2893만 4000대를 차지했다.

특히 상반기 재고 소화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매출 부진을 털어내려는 각 업체들의 신제품 발표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회복세는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장기간의 연휴가 이어진 '국경절' 등을 맞아 업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한 판촉활동에 나서는 것도 매출 증가에 한 몫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올해 초 휴대폰 생산 인가를 획득한 신생업체들의 연말 제품 출시도 주목된다. 이들 업체들은 그러나 시장점유율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어서 대기업들의 행보에 따른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보다폰, 인도 통신회사 주식 10% 취득

보다폰의 세계화 전략이 서서히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글로벌 통신회사인 보다폰은 미국의 버라이즌을 비롯해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 투자 형식으로 자사 입지를 굳히고 있다.

아시아권의 경우 일본에 투자해 보다폰을 설립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 보다폰은 최근 인도의 통신 회사 BTVL(Bharti Tele-Ventures)에 665억 6000만 루피(14억 8000만 달러)를 투자해 이 회사 주식 10% 획득 계획을 밝혔다.

보다폰은 BTVL의 주식 1주에 351 루피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월 27일까지 5일간 BTVL의 평균 주가보다 7.4%높은 금액이다. 그만큼 보다폰의 인도 시장 진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 더불어 떠오르는 최대 모바일 시장으로 불린다.

日 와이맥스 개발경쟁 본격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산하 BB모바일이 한국 LG전자·캐나다 노텔 네트워크와 함께 지난 달 25일, 3G의 고속 데이터통신 사양인 'HSDPA'와 모바일 와이맥스(IEEE802.16e), 무선랜 3가지 기술을 이용한 핸드오버 시연에 성공함에 따라 와이맥스 사업권을 둘러싼 일본 통신사업자간 공방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후지산케이 등 일본 외신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대용량 동영상 등을 고속전송할 수 있는 '16e' 기술에 대한 일본 통신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업권 획득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가져가고 있다.

와이맥스는 75Mbps 속도로 고속 이동중에서도 인터넷 사용이나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기술. 국내 와이브로 기술과 '16e'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최종 표준이 올해 안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총무성은 현재 2.5GHz대에서 2006년에 일정한 주파수 폭을 와이맥스용으로 할당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이번 실험에 성공한 BB모바일은 현재 3G를 통한 이동전화 사업 진출과 함께 와이맥스 사업권 취득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동전화 사업에 뛰어들 경우, 후발 사업자로써 갖는 약점을 상쇄하겠다는 전략.

이미 BB모바일은 노텔과 함께 1.7GHz대를 이용한 HSDPA 시연 및 3G와 무선랜간 핸드오버 실험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공동시연은 여기에 모바일 와이맥스를 부가한 것이다.

퀄컴-브로드컴간 '소송전' 점입가경

퀄컴과 브로드컴간 특허소송이 점입가경 형국이다.

인포월드 등 외신에 따르면, 브로드컴이 지난 5월 퀄컴을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한 데 대응해 퀄컴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브로드컴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을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방 재판소에 제기했다.

퀄컴과 브로드컴간 특허 소송은 지난 5월, 브로드컴이 특허 10건의 침해혐의로 퀄컴을 제소한 데 이어 동시에 미국무역위원회(ITC)에 퀄컴이 브로드컴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부정 수입하고 있다는 혐의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브로드컴은 이어 7월, 퀄컴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했으며, 이 직후 퀄컴은 브로드컴이 자사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맞불을 놓았다.

이번에 퀄컴이 다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한 것은 이미지 압축 기술과 비디오 인코딩/디코딩 관련 2건이다.

PSP출하, 10개월만에 1천만대 돌파

소니의 휴대게임기 '플레이 스테이션 포터블(PSP)' 출하대수가 전체 1000만대를 돌파했다.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www.scei.co.jp)가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PSP 출하대수는 일본·아시아 지역 300만대, 북미 447만대, 유럽 253만대 등 모두 1000만대를 넘어서다.

국내의 경우, SCE코리아는 지난 5월 공식 발매 후 10월 현재 출하량은 20만대 이상이며, 이중 18만대 정도가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4년 12월 첫 발매 후 10개월만의 일로, SCE측에 따르면 PS2의 약 12개월을 웃도는 것으로 이 회사 휴대 게임기로는 가장 빠른 성과다.

한편 대용 소프트웨어는 9월말 현재 전세계에서 총 197 타이틀이 발매됐으며, 누계 출하 1960만개에 달한다고 SCE는 덧붙였다.

모토로라·인텔, WiMAX '맞손'

모토로라와 인텔이 '모바일 와이맥스(IEEE 802.16e)에서 손 잡았다.

모토로라와 인텔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양사 공동대응으로 모바일 와이맥스(이하 와이맥스) 보급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이후 '와이맥스 포럼'에서 네트워크나 단말기의 상호 접속성에 대한 논의에서 공동보조를 취할 방침이다.

양사는 이미 고정형 와이맥스(IEEE 802.16)에서 공동보조를 취해왔으며, 이번에 이를 모바일 와이맥스쪽으로도 확대한 것이다.

모토로라는 자사 기기 및 통신 네트워크를 인텔 제품과 호환성을 갖도록 연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모토로라는 지난 3월, 와이맥스(IEEE802.16-2004)에 대응하는 장치를 개발, 2006년 초 출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제품은 모토로라 제품 시리즈 'Canopy'를 기초로 와이맥스에 준거한 전파 송수신이 가능한 장치(3.5GHz대 주파수 이용)이다. 모토로라는 이때 '16e'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인텔은 지난 4월, 전용 LSI '인텔 프로/와이어리스 5116(Intel PRO/Wireless 5116)'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이전까지 개발코드 'Rosedale'로 알려진 것이었다.

당시 인텔 발표에 따르면, 알바리온·프록심·레드라인 커뮤니케이션즈·지맥스 테크놀로지스 등이 인텔의 와이맥스 칩에 대응한 IEEE 802.16-2004 표준제품을 이용,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인텔은 노키아 스프린트 등과 와이맥스 협력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스프린트와 인텔은 차세대 통신규격으로 평가받는 IEEE 802.16e 기반 와이맥스 규격 개발에서 상호 협력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양사는 기술 규격과 기기 트라이얼, 상호 호환성 테스트 등을 공동 실시하게 된다.

인텔은 또 지난 6월 노키아와 기술 협력을 체결, 와이맥스 기술이 모바일 기기 및 노트북 플랫폼에 구현될 수 있도록 기술적 필요요소를 파악하고 광범위한 와이맥스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中 TD-SCDMA 망 구축 예정대로”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3세대(3G) 이동전화 규격인 TD-SCDMA 네트워크 구축이 예정대로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3G 사업권의 향배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징화시보(京華時報)가 최근 TD-SCDMA산업연맹(www.tdscdma-alliance.org) 관계자 말을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TD-SCDMA의 시범 서비스 망 구축작업이 베이징 시내에서 진행중이며, 관련 테스트는 8월 종료될 예정이다.

시범 망 구축시 기지국은 수백대 규모로 용량은 20만 회선 이상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베이징시 이후 상하이시, 톈진시(天津市), 호북성·우한시(湖北省·武漢市)에 잇따라 동일한 네트워크가 구축될 예정이라고 징화시보는 전했다.

이미 TD-SCDMA산업연맹은 지난 8월 개최된 'TD-SCDMA 네트워크의 응용 및 3G서비스심포지엄'에서 기존 리소스를 활용한 3G 네트워크 구축에 이어 올해 안 상용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범 네트워크 구축 계획은 이러한 예정에 따른 것으로 순조로운 진행이라는 게 징화시보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다탕텔레콤과 공동실험에 성공한 상하이 벨 알카텔은 이미 신식산업부에 3G 솔루션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TD-SCDMA산업연맹은 TD-SCDMA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02년 10월, 다탕텔레콤과 화웨이, ZTE 등 중국기업 8사가 설립한 단체로 2003년말과 지난 4월, UT스타콤이나 상하이벨알카텔 등 13사가 새로 가입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새로 가입한다고 베이징신보(北京農報)가 업계 관계자 말을 인용, 보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